

자유의 밴

낮은 밴을 구해 캠퍼 밴으로 개조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자신의 캠퍼 밴을 타고, 세계를 돌아다니며 살아간다. 여행이 아니다. 삶의 방식이며,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깨달음이다. 어디든 갈 수 있고, 어디서나 경이로움을 느끼는 움직임은 집, 밴 라이프를 실천 중인 7팀이 말하는 진정한 자유의 의미다.

브라이언 가드비

Brien Godby @theotherground

자리에 연연하지 않아도 된다. 인터넷과 연결만 된다면, 작업을 온라인으로 주고받을 수만 있다면 비싼 사무실에 틀어박혀 창의력을 쥐어짜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다.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스마트폰으로 무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된 시절부터 노마드는 화두로 떠올랐다. 여행 다니며 일하는 사람이나, 재택근무로 워라밸을 충족하는 이상적인 이야기들이 오갔다. 노마드족이 더 이상 언급되지 않는 것은 그것을 선택한 사람들이 적었고, 또 그것이 실제 업무 환경과 동떨어졌기 때문이다. 브라이언도 그런 생각을 품은 사람이었다. 그는 플로리다 올랜도에 위치한 프로덕션 스튜디오에서 아트 디렉터 겸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했다. 무려 7년 동안, 8년째 되던 해 그는 스튜디오를 나왔다. 세상 밖으로 발을 내딛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도로다. 그는 자신의 일은 사무실이 아닌 도로에서도 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 그 믿음을 좇아 밴을 구매했고, 달리고 일하고 쉴 수 있도록 개조했다. 이후 브라이언은 미국의 숨은 보석을 찾아 달리기 시작했다.

폭스바겐 바나곤 웨스트팔리아 1984

36년이 넘은 밴이다. 광택이 흐르는 열은 올리브색 밴에서 브라이언은 일하고, 먹고, 자고, 쉬고, 달린다. 노트북과 태블릿을 놓을 수 있는 테이블만 갖추면 일할 수 있는 그이기에, 밴의 내부는 사무실보다 집에 가깝다. "실내에는 싱크대와 스토브, 접이식 침대를 장착했어요. 루프톱 텐트는 실내와 연결해 지붕을 여닫을 수 있도록 만들었죠." 브라이언의 밴은 언제나 손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다. 숨어 있는 세컨드 침대를 펼치면 손님도 쉬어갈 수 있다. 사막과 같은 전력이 없는 환경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솔라 패널을 설치했다.



냉장고에 공급되는 200와트의 태양열 에너지는 음식의 신선도를 유지해준다. 이 정도면 될까? 밴 라이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나는 물음에 브라이언이 답한다. "협소한 공간에서 생활하려면 편리함은 포기해야 해요. 양치질과 설거지 같은 작은 일조차 성가시거든요. 불편을 감수하는 것이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좁은 공간에서 불편한 생활을 감수할 자세를 갖추었다면 더 이상 준비할 것이 없다고 말한다. "캠퍼 밴과 함께 어디든 갈 수 있을 겁니다." 브라이언이 말했다.

집 밖은 창의성의 연속
인적 없는 캘리포니아 사막, 수천 년 된 나무들이 빌딩 높이를 자랑 숲. 미국 내 어디를 여행하더라도 휴대폰은 신호가 잡히고, 노트북은 인터넷에 연결된다.

달리 말하면 미국에서 가장 깊은 오지를 탐험하더라도 전기와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면, 브라이언은 일할 수 있고, 생활비를 벌고, 내일에 대한 걱정 없이 하루를 즐길 수 있다. 이 현대적인 유목 생활은 8년 차 직장인 브라이언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창의적인 일을 하는 사람에게 여행은 훌륭한 영감이 됩니다. 밴을 타고 지나온 모든 곳이 창의성의 연속이었고, 이 여행에서 얻은 영감은 곧 작업으로 이어지죠." 브라이언은 밴을 타고 집 밖으로 나선 이후 자연에서 살아가며 깨달은 것이 있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그 가치다. 단순히 영감을 얻는 수준을 넘어 집 밖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서 행복을 발견한다. 브라이언이 밴 하나에 의지해 대자연



속으로 뛰어 들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자연과 친밀한 환경에서 자란 덕분이기도 하다. 그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랐다. 농장이 즐비한 전형적인 미국 시골이다. 가족이 모여 살며 평화로운 유년기를 보냈다. 하지만 그 마을에도 문제는 있었다. 먼저 마을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고, 다른 지역의 문화나 생활, 가치관을 접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시야는 좁을 수밖에 없다. "여행하면서 마주한 문화적인 경험은 고향 마을에서만 생활하며 시야가 좁아진 저를 세상 밖으로 꺼내주었어요. 편견을 떨치게 되었죠." 브라이언은 바깥세상과 교류하며 세상을 보는 관점이 유연해졌다. 결론적으로 인간에 대한 냉소가 해소될 수 있었다고 덧붙혔다.

퍼시픽 노스웨스트를 보라

캠퍼 밴 여행의 즐거움 중 하나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다. 다른 캠퍼들을 만나 어울리고, 음식을 나눠 먹기도 하고, 때로는 샤워 시설을 혹은 하룻밤 묵을 자리를 얻기도 한다. 사람들은 브라이언에게 말한다. 캠퍼 밴 라이프는 늘 위험이 도사린다고.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경험상 위험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브라이언이 말했다. 밴 라이프가 늘 즐겁지만은 않을 것이다. 끝없이 이어진 미국의 도로를 운전하는 일은 지루할 법도 하다. "하지만 제가 원할 때 언제나 멈추고 머물 수 있죠. 운전은 하고 싶을 때 하면 되구요." 그는 항상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다는 점이 좋지만, 그렇다고 새로운 것을 보기 위한



여행은 자신을 압박하는 것 같으며 손사래 쳤다. 그럼 그가 일부러 찾아 떠난 곳은 아니지만 우연히 만난 곳 중 가장 아름다운 장소는 어디였을까? "퍼시픽 노스웨스트는 제가 가본 곳 중 가장 아름답습니다. 절대적으로요. 바다, 산, 가파른 언덕, 푸른 숲을 동시에 보고 싶다면 그곳이 적격입니다." 퍼시픽 노스웨스트는 경이로운 풍경은 물론 하이킹, 캠핑할 곳이 많아 미국 캠퍼들에게 인기가 많은 지역이다.

이미 그곳은 집

브라이언은 밴 라이프를 시작했을 당시를 기억한다. 그는 일주일간 한순간도 미소를 잃지 않았다. 지금도 그 시절을 가장 행복했던 순간으로 꼽는다. 아찔한 순간도 있었다. 콜로라도 산맥의 눈 덮인 도로를 지날 때다. "밴은 통제력을 잃었고, 도로에서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제가 가진 것들이 거의 부서졌죠." 그의 오래된 밴은 수리를 마쳤지만 위험하고 또 느린 건 변함없었다. 그럼에도 다시 밴을 끌고 도로에 오르는 이유는 뭘까. 브라이언은 느리게 이동하면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밴은 집과 마찬가지로요. 돌아올 곳이 없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에 엄매일 필요 없죠. 이미 밴이 집이니까요." 1984년형 폭스바겐 바나곤 웨스트팔리아는 현재 그의 집이다. 그는 이 집이 완전히 노후되어 부서질 때까지 미국 전역을 떠돌며 살 것이다. 하지만 그도 언젠가는 정착할 계획이 있다. 단지 그는 지금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많은 여행을 할 수 있는 시기라고 했다. "도로를 달리며 인생의 많은 교훈을 얻었어요. 하지만 당장 정착할 수는 없다. 거대한 기회를 놓치는 것 같으니까요." 가족에 대한 의무, 책임이 없는 지금이야말로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접하고 싶다고 말했다.

타임캡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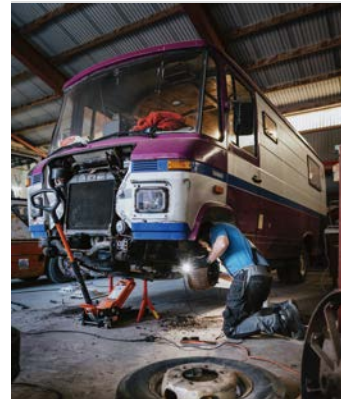
브라이언은 자신의 1984년형 폭스바겐 바나곤 웨스트팔리아를 추억의 타임캡슐이라고 소개했다. 여행하며 모든 소소한 기념품도 있지만, 밴은 그가 여행하며 만난 사람들과 장소를 떠올리게 한다. 밴의 내부는 그의 추억으로 채워져 있다. "함께 캠핑한 사람들과 밴을 타고 돌아다니던 장소를 떠올리는 건 매우 흥미로워요." 브라이언의 지금 목표는 미국 대륙의 50개 주를 모두 여행하는 것이다. "그다음이요? 한국을 방문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언젠가 브라이언의 밴이 흥천 유원지에 있는 모습을 기대해본다.

비요른&카샤

Björn&Katja @beelzebus

메르세데스-벤츠 508D 1984

오늘날 메르세데스-벤츠의 대표 밴은 스피린터지만, 그 이전에 활약했던 밴은 508D다. 미니버스로 쓰이거나, 내부 좌석을 모두 제거하고 화물차로도 오래도록 활약했다. 업계에서 은퇴한 지 오래된 차량이지만, 이런 낡은 차를 가져다 새 생명을 부여하는 사람들이 있다. 비요른과 카샤도 그런 사람들 중 하나다. 1984년 모델로 할 일 다 하고 퇴역한 차량을 가져와 직접 수리했다. 전면 그릴조차 제대로 없던, 보닛 커버도 없는 차량이었다. 가진 건 골격뿐이었다. 심지어 흰색과 자주색의 과장한 색상도 골칫거리였다. 비요른과 카샤는 주요 부품을 탈거하고, 새시를 직접 채색했다. 번쩍이는 회색빛은 36년 된 밴을 최신 차량처럼 세련되게 만들어줬다. 성공적인 드레스업이다. 심장이 바꿨다. 508D에 백만 마일을 달린다고 알려진 4기통 디젤 엔진을 장착했다. 그리고 밴 라이프를 위해 편의 사양을 추가했다. 크루즈컨트롤이나 애플카 같은 기능 말고, 수온 온도 조절 장치를 설치했고, 샤워 시설과 화장실도 갖췄으며, 주방과 침대, 거실 공간을 만들었다. 와이파이가



작동을 위해 태양열 시스템도 장착했다. 지붕의 루프랙은 508D 크기에 맞춰 직접 제작하고 설치한 것이다. 지붕에서 실 수 있도록 나무 데크도 구비했다. 이쯤 되면 움직이는 리조트가 아닌 싶다. 마지막으로 차량에 이름을 부여했다. 베엘제부스(Beelzebus)로 명명하자 36세 밴은 생명을 갖고 붉은빛을 내기 시작했다.

로포텐제도

무턱대고 밴을 구입해서 여행한 것은 아니다. 비요른과 카샤는 노르웨이로 휴가를 떠난 적 있다. 자동차 여행이었고, 그들의 발이 되어준 차량은 링컨 내비게이터였다. 자동차 여행 그러니까 로드 트립에 매료된 그들은 베엘제부스를 만들기 마음먹었다. 이후 베엘제부스를 타고 북유럽을 여행 중인 그들은 비요른과 카샤 그리고 털이 복슬복슬한 반려견 발타자르. 셋이 함께 경험한 여행 중 가장 인상적인 곳은 노르웨이에 위치한 로포텐제도다. 오로라를 관측할 수 있는 로포텐제도는 노르웨이 로드 트립의 꽃으로 불린다. 아이슬란드보다 더 높은 북극권에 위치한 지역이다. "로포텐제도는 매우 경이로웠죠. 수많은 산세가 험한



지역이었고, 고래 사파리도 방문할 수 있었어요." 비요른이 말했다. 비요른과 카샤는 하늘을 뒤덮은 오로라를 배경으로 베엘제부스와 함께한 사진을 보여줬다. 하지만 눈 덮인 북극권을 여행하는 건 결코 쉬운 여행이 아닐 것이다. 밴 라이프에 앞서 준비할 것은 무엇일까. "예상치 못한 지출과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한 준비가 필요해요. 어떤 상황이 닥칠지 모르니 보험도 필요하죠. 기본적인 수리 도구와 스페어타이어 같은 것들도요."

나를 위한 시간

밴에서 먹고 자고 휴식을 즐기는 건 집을 떠나 즐기는 일탈이다. 밴 라이프는 일탈과 다르다. 여행이 일상이고, 도로가

터전이며, 집은 네 바퀴 달린 밴이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미래에 대한 고민이 있지는 않을까? 예측할 수 없는 내일이 불안하지는 않을까? "집을 팔았어요. 그 외 가진 모든 것을 처분했죠." 비요른의 대답은 놀라웠다. 현재 그들이 가진 건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 베엘제부스뿐이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없다는 게 불안하지는 않아 보였다. "일은 덜 하지만 더 많은 걸 경험할 수 있죠." 스웨덴의 다른 사람들처럼 직장을 갖고 미래를 준비하던 비요른과 카샤는 어느 순간 깨달았다고 한다. 인생의 소중한 시간들, 아니 대부분의 시간을 다른 이들을 위해 일하는 데 쓰고 있다는 사실을. 이런 누구에게나 해당될 것이다. 또 그 시간은 인생에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고, "덜 일하고 나를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쓰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적어도 우리에게는 말이죠." 내 삶을, 그러니까 하루의 시간을 대부분 나를 위해 쓴다는 것. 그 경험은 그들의 가치관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그들이 깨달은 것은 무엇일까. "세계를 여행하고 탐험하는 건 감사한 일이예요. 우리를 더욱 개방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줬어요. 또 스스로 성장하고 있다고 믿어요."

사교의 순간

밴 라이프를 산다고 해서 매일 운전하는 것은 아니다. 비요른은 하루에 여섯 시간 이상 운전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매일 장거리 운전을 하는 것은 차에게도 비요른과 카샤 그리고 발타자르에게도 피곤한 일이다. 그들은 이동하기보다 머무는 편이다. 흥미로운 장소를 발견하면 최소한 2~3일은 머문다. 더 오래 머물 때도 많고, 장거리 운전을 피하는 것은 피로감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루할 법도 하다. 아무리 아름다운 풍경이라 하더라도 몇 시간씩 보는 건 힘들 테니까. "고속도로만 계속 달리는 건 당연히 지루하죠. 하지만 달리는 차 안에서 많은 풍경과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어디로 이동할까. 그들은 북유럽 대자연을 배경으로 한 사진들을 보내줬다. 그다음 목적지가 궁금했다. "유럽 모든 국가를 여행하려고 해요. 지금 계획 중인데 곧 시작할 거예요." 유럽 여행을 마친 뒤에는 어떻게 될까? "전 세계를 여행하지 않을까요?" 비요른과 카샤는 밴 라이프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자유를 만끽할 때라고 말했다. 그들이 원하는 곳 어디든 가고, 어디서든 살아볼 수 있다. 물론 위험한 순간도 있다. "산길을 달리던 중 전속력으로 달려온 역주행 차량과 충돌했을 때예요. 좁은 산길이라 멈출 수 없었죠." 다행히 절벽으로 떨어지진 않았지만 그날의 기억을 가장 무서운 순간으로 꼽았다.



스웨덴 로망스

밴 라이프와 다른 여행의 차이는 나만의 집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호텔이나 모텔에 머무는 것에 비하면 아주 저렴하죠." 비요른이 말했다. 밴을 개조하는 데 쓴 비용이나, 밴의 감각에 대해 말하고 싶었지만 그런 건 의미 없는 질문 같아 관했다. 대신 그들이 정착하지 않고 노마드를 지속하는 이유를 물었다. "전 세계를 탐험하고 싶어요. 어디를 가든 우리는 서로가 가장 중요하고 필요해요. 멈추는 곳이 정착하는 곳이고, 우리가 함께 있다면 그걸로 됐어요." 이것이 북유럽식 로맨스인가 싶다.



에릭&조안나

Eric&Joana @desfenetressurlemonde

에릭과 조안나는 건축가였다. 그들은 인생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누구나 겪는 불행과 좌절이다. 둘은 오랜 시간 공부했고, 대항 업무를 병행하며 학교를 졸업했다. 일에만 매진한 삶이었다.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른 채 살았다.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 자신을 위해 일해야만 했고, 압박과 책임감이 뒤따랐다. 자신을 혹사시키는 삶이었다. 일상이 회의감에 젖어갈 때 그들은 여행을 꿈꾸기 시작했다. 마침 그들은 직접 개조한 오래된 차량 몇 대를 갖고 있었다. 긴 여행을 떠나고자 하는 꿈은 있었고, 그 일탈의 결말은 현실 복귀였다. 어쩌면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더 적절한 시기가 오리라는 기대를 해야만 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 원하는 삶을 살 수 없으리라는 불안이 엄습했다. 결국 에릭과 조안나는 프랑스의 아파트를 떠났다. 가진 물건은 모두 처분했다. 그리고 2015년 6월 캐나다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캐나다에서 구입한 건 밴이었다. 밴은 에릭과 조안나를 모험으로 이끌었다. 밴 라이프를 시작한 이후 그들에게 계획이란 존재하지 않았다. 도로에 던져졌고, 마냥 달렸으며, 발견하고 만나고 살았다. 이후 로드 트립은 진정한 삶의 방식이 되었다.



폭스바겐 T3 웨스트팔리아 1984

에릭과 조안나는 직접 개조한 1978년형 폭스바겐 T2 콤비를 소유할 정도로 클래식카 팬이다. 그들은 미 대륙 횡단을 위해 폭스바겐 콤비를 원했다. 기계식 차량인 데다 크기가 작아 어디든 이동하기 좋고, 이상적인 웨스트팔리아 인테리어도 적용됐으니까. "콤비는 로드 트립의 전설적인 모델인데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에릭이 말했다. 그들은 2015년 7월 1984년식 폭스바겐 T3 웨스트팔리아를 구입했다. 이름은 '포포'라고 지었다. 웨스트팔리아는 두 개의 더블베드가 제공된다. 하나는 바닥에, 다른 하나는 루프탑 텐트다. 주방에는 싱크대와 냉장고, 조리대도 있다. 수납장도 많고, 갑작스레 도로에 내던져진 그들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포포에게 더 큰 사랑을 주었다고 한다. "5년이 지난 지금 포포는 더욱 새로워졌어요. 자연과 모험은 그에게 제2의 청춘을 주었거든요." 그들은 도로를 달리며 더 쉽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게 무엇인지 결정해왔다. 보조 배터리를 추가했고, 냉장고도 전력 효율 좋은 걸로 바꿨다. 도로 위에서 일하기 위해 어닝과



솔라 패널도 추가했다. **독립심** "밴 라이프에 중요한 건 독립심이에요." 에릭은 내 차에 확신을 갖고, 잘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사고는 언제 어디서 생길지 모르니 대처할 줄 알아야 하니까. 밴은 내 라이프스타일과 여행, 능력, 필요성에 맞게 선택해야 한다. 포포는 그들보다 더 나이가 많은 오래된 차다. 그들은 차의 소음에 주의를 기울이며, 정비에 필요한 부품과 장치를 싣고 다닌다. 이외에도 샤워에 쓰는 워터 리저브 장치나, 전자제품 사용을 위한 전기 시스템, 주유소가 없는 지역을 여행할 때 필요한 가솔린 제리칸도 탑재했다. "많은 짐이 필요하진 않아요. 로드 트립의 핵심은 자율성이죠." **진정한 자유** 그들은 포포와 함께 16만5천 킬로미터를 달렸다. 캐나다와 미국 50개 주, 멕시코, 벨리즈와 과테말라까지 여행했다. 잊을 수 없는 만남과 경이로운 풍경의 연속이었다. 알래스카의 거친 풍광과는 사랑에 빠졌고, 미국 서부는 마음속에 평생 남을 예정이다. 대체로운 풍광의 유다는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곳이고, 멕시코의 풍경과 친절함은 언제나 놀랍다. "우린 벨리즈 정글에서 인디애나 존스 놀이와 과테말라 화산의 색감을 사랑해요." 인생에서 정착하고 싶은 곳으로는 유타를 꼽았다. 거대한 풍광, 자연 속 보물은 셀 수 없이 많고, 국립공원도 다양하다. 서부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경치와 다른 행성에 온 듯한 풍광도 인상적이다. "밴에서는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진짜 파라다이스가 펼쳐져요. 그것도 무료예요. 언제나 원하는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다는 것. 이게 진정한 자유 아닐까요?" **전 세계가 나의 집** 만일 노마드 라이프를 한 단어로 규정한다면, 그건 자유일 것이다. "간소화된 삶, 자연에 가까운 삶을 살기 위해선 자유로워야 해요." 에릭은 물질주의에서 벗어나면 진정한 가치에 한 걸음 가까워진다고 말했다. 밴 라이프를 시작한 후 그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게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경험과 추억이면 충분하다. 행복은 캠핑아이와 아름다운 산을 하이킹하는 것이다. 도로 위의 삶은 매일 그들을 새로운 세계로



인도한다. "가치관도 달라져요. 삶과 자아를 재조명할 기회를 주죠. 세상이 달리 보일 거예요." 그들은 밴 라이프가 인생에 대해 더 많은 생각, 감사, 이해를 하도록 해준다고 했다. 내 주변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타인과 행인에게는 개방적인 마음을 갖게 된다. "우리는 밴에서 생활하지만 달리 보면 자연과 함께 사는 거예요." 여행 전에도 그들은 세계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어 있었지만, 전 세계를 집으로 삼으니 세상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고 한다. 세계를 잘 보호해야 하며,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이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깨달았다. **세상은 여전히 밝고** 에릭과 조안나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곳을 발견하고, 그들 스스로 존재감을 확인하기 위해 여행한다. 믿을 수 없는 순간과 우연한 만남은 모두 모험의 일부다. 인상적인 사건은 모두 만남에서 비롯된다. 뉴멕시코 엘 말파이스에

도착했을 때 인터넷을 하기 위해 근처 맥도날드에 들렀다. 그곳에서 한 남자가 그들에게 접근했다. 그는 무언가를 주려고 했다. 몇 분 뒤 그가 잠깐 자리를 비우고 돌아오더니 매 날개를 건넸다. "당신들에게 행운을 줄 거예요. 그리고 당신, 아내, 캠퍼 밴을 보호해줄 겁니다." 그 남자는 조안나에게 직접 제작한 목걸이도 선물했다. 하지만 그 남자의 말투와 행동은 불쾌했기에 에릭은 꽤나 흥분한 상태였다. 남자가 사라진 뒤 주차장에서 그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남자는 최악의 모습을 보였지만, 사실 그는 우리에게 최선을 다했어요." 에릭은 세상에겐 여전히 밝은 면이 있음을 깨달았다. **여행은 살아가는 것** 여행은 살아가는 것. 장시간 운전엔 지치지 않았다. "사실 저희는 운전을 사랑해요. 사막과 숲을 건너고, 수십 킬로미터의 풍광이 우리를 뒤따라요." 때로는 지평선의 아름다움에

매혹되는 바람에 길을 잃기도 했다. 그들은 운전이 명상 같다고 말한다. "새로운 장소를 발견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보겠다는 확신이 있다면 전혀 지루하지 않아요. 호기심과 목마름은 우리를 자극하죠." 5년간 세상을 떠돈 그들이 정착하지 않는 것도 목마름 때문이었을까. 에릭은 여행이 세계, 다양한 문화, 또 다른 현실을 열어준다고 한다. 그는 구스타브 나도(Gustave Nadaud)의 문장을 인용했다. "머무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며, 여행하는 것은 살아가는 것이다." 에릭은 도로가 테라피라고 한다. 살아 있는 느낌을 주고, 밴으로 이동하는 것은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 그들에게 포포는 어떤 의미일까. "발견을 위한 도구예요. 나 자신을 발견하기 위한 움직임은 집이라 할 수 있죠. 자유이기도 하고요." 그들의 다음 행선지는 팬아메리칸 하이웨이이다.





브래드 제임스턴
Brad Jameston @bradinthevan

브래드 제임스턴은 영국의 싱어송라이터다. 과거 그는 여름을 맞아 이비스 해변의 바에서 보컬로 일했다. 그 시절 그는 이비스 스페니시 섬에서 캠핑을 했다. 나무에 해먹을 걸어놓고 휴식을 취하던 중 캠퍼 밴을 발견했다. 바퀴 달린 텐트는 그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 그는 자신만의 캠퍼 밴을 만들어야겠다는 결심이 섰고, 곧장 종이 위에 디자인을 그렸다. 루프에는 잔디가 있고, 내부에는 해먹이 걸린 캠퍼 밴이었다. 캠퍼 밴을 실제로 만들기까지는 1년이 걸렸는데, 그동안 디자인 초안을 지갑에 넣어 다녔다고 한다. 그의 첫 밴 라이프는 영국 북동부에서 시작해 이비스로

향하는 코스였다. 첫 여행을 회고하며 브래드는 말했다. "밴을 타고 프랑스와 스페인을 가로질러 갔을 때 느꼈죠.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불안과 흥미를요. 굉장한 감정이었어요!"

복스홀 모바노 2011

브래드의 캠퍼 밴은 2011년식 복스홀 모바노다. 비교적 최신 차량이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캠퍼를 개조했는데 2주가 소요됐다고 했다. 부자가 함께 돈독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다. 그의 개조 작업은 위에서 아래로 이어졌다. 먼저 지붕에 잔디 갑판을 설치했다. "지붕은 요가나 작곡, 별 아래서 쉬기 좋아하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장소죠." 그는 친구를 초대해 빔 프로젝트로 영화를 보는

즐거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리고 해먹. "모닝커피 마시기 제격인 자리죠." 브래드는 해먹은 조립과 분리가 쉽고 공간을 적게 차지하는 것을 장점으로 꼽았다. 자급자족을 위해 지붕에는 솔라 패널을 장착했다. 언제 어디서든 휴대폰과 노트북 충전을 하기 위해서다. 개조를 마친 다음 브래드가 준비한 건 무엇이었을까. "짐은 가벼워야 합니다. 밴 라이프의 아름다움은 필요 없는 물건을 소유하지 않는 것이죠." 옷장을 최소화하고, 잡동사니를 없애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인지 그의 사진은 제대로 옷을 걸치고 있는 모습이 별로 없다. 몸이 좋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만 챙기길 추천했다. "그리고 절대 해변에서 운전하지 마세요. 모래에 빠진 적이 있는데, 어쩌나 무섭던지."

세상은 생각보다 무섭지 않아
브래드는 캠퍼 밴으로 유럽을 여행하고 있다. 영국, 스코틀랜드, 웨일스, 네덜란드, 프랑스, 스페인, 독일, 스위스, 벨기에,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이다. 하지만 그는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포르투갈을 꼽았다. "안개 자욱한 정글과 고대 해안 지대와 모로코의 산지와 사하라 사막은 말 그대로 정신적이에요." 그는 대자연의 아름다움에 빠져들었고, 그 순간을 결코 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밴 라이프, 그러니까 노마딕 라이프는 그의 가치관을 어떻게 바꿔놓았을까. "제 운명을 관리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현대 생활의 경계와 규율을 깨트리고, 제가 더욱 창의적인 사람으로 변했죠." 그는 여행하며 경험한 모험을 바탕으로 음악을 만들기도 했다. 그는 다른 세계를 경험하며 언어는 다르지만, 사람의 마음은 따뜻하고 사랑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영원히 제 인생을 바꿀 거예요. 세상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무섭지 않거든요!"

절친 버디
밴 라이프는 우연의 연속이다. 브래드는 포르투갈에서 인생의 절친을 만나게 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그는 포르투갈 북부 지역을 여행하던 중 버디라는 개를 만났다. 포르투갈은 떠돌이 개가 많은 나라로도 유명하다. 어느 지역을 가도 주인 없는 개들이 있다.



그때는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이었다. 매일 내리는 비 때문에 기분이 울적할 때, 버디가 나타났다. 도로를 가로질러와 브래드 앞에 불쑥 나타났다. "처음에는 저를 향해 달려오기에 있는 힘껏 발로 밀쳐냈죠. 그리고 버디가 다치진 않았는지 확인하려고 밴에서 내렸어요. 버디는 멀고 있었죠." 우기에, 집도 없으니 제대로 영양 섭취를 못 했을 것이다. 바짝 마른 버디는 온순했다. 브래드는 버디를 밴으로 데려왔다. 버디는 브래드 옆에 앉자마자 잠이 들었다. 그 이후로 버디는 브래드의 절친으로 함께하고 있다.

목적지보다는 여행 그 자체

아무리 밴이라 하지만 도로 생활은 안전하지 않다. 브래드는 아프리카 북부의 해변에서 위험천만한 순간을 겪었다. 어느 때와 같이 해변을 둘러보고, 잠들기 위해 도로 빈자리를 찾아다녔다. 그러다 어두운 모퉁이를 발견하고 주차했다. 평소처럼 잠이 들려는 순간 '쿵' 하고 밴에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이어서 아랍어로 떠드는 큰 소리가 들렸다. 브래드는 갱스터라고 짐작하고 그들이 떠나길 바라며 침대에 누운 채 어떠한 소리도 내지 않았다. 마치 빈 차처럼 보이려고 했다. 하지만 그들은 떠나지 않았고, 창문을 두들기기 시작했다. "저는 용감해지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브래드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문을 열어아만 했다. 문 밖에는 경찰 두 명이 서 있었다. "그들은 이곳이 위험하다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라고 절 깨운 것이었죠." 경찰은 매우 친절했고,

브래드에게 안전한 장소를 안내했다. 브래드는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 시절을 회상하면 웃음이 나온다고 했다. 아찔하면서도 우스운 상황이었다. 그가 주차할 자리를 찾아 헤매는 것은 어쩌면 내비게이션을 안 쓰는 습관 때문일 것이다. 브래드는 운전할 때 GPS를 꺼놓는다. 어디로 이동하는지 알 수 없도록, 이동하는 데 시간은 더 걸리지만 그래도 좋다고 한다. "인생에선 목적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행 그 자체가 중요해요." 브래드가 말했다.

자연, 자유, 평화 그리고 모험

브래드의 밴 라이프는 현재진행형이지만 언젠가는 시동을 끄는 날이 올 것이다. 누구나 책임져야 할 사람이 생길 테니까. "가정을 꾸리는 순간 정착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날이 와도 항상 캠퍼 밴으로 여행을 떠날 거예요. 아이들에게 별 아래 펼쳐진 캠핑의 아름다움을 알려주고 싶거든요." 만약 그가 이비스에서 노래를 하지 않았다면, 스페니시섬에서 캠핑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제가 캠퍼 밴 라이프는 자유, 자연, 마음의 평화, 그리고 모험이에요. 캠퍼 밴과 함께하는 순간이 없었다면 제 인생은 어떻게 되었는지 상상도 할 수 없어요." 다음 목적지가 어디냐는 물음에 브래드는 "미국과 호주를 가로질러 여행하는 게 목표예요. 곧 그렇게 할 거고요." 호주와 미국에서도 지붕에 잔디를 깔 밴이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는 날이 올 거다. 또 그 위에서 물구나무선 채 요가하는 브래드의 모습도 보게 될 테고.





샬럿&제임스 매독
Charlotte & James Maddock
@cjmaddock

밴 라이프는 우연의 세계다. 우연한 풍광과 장소, 우연한 만남과 사건이 연속된다. 때로는 우연히 시작되기도 한다. 샬럿과 제임스가 캠퍼 밴을 만난 건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우연이었다. 그들의 여행이 우연으로 가득하리란 전조였을 수도 있다. 그들은 어느 날 밤 늦게까지 업무에 시달렸고, 인터넷에서 1975년식 콤파 밴을 발견했다. 에너지 드링크와 초콜릿을 გადა 섭취해서였을까. 흥분한 상태로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다. 주인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다음 날 만나기로 약속했다. 실제 밴의 모습을 보았을 때는 곧장 사랑에 빠졌다. 그리고 거금을 지불한 후 밴을 가져왔다. 사실 그만한 돈도 없는 상태였지만 어떻게든 마련했다. 반년 뒤 그들은 여행 목적에 맞게 밴을 개조하고 인테리어에 신경 썼다. 그리고 12개월간의 호주 여행을 위해 하던 일을 그만뒀다.

폭스바겐 타입2 1975
샬럿과 제임스의 밴은 올해로 45세다. 11월 1일생이니 아직 44세이긴 하다. 의인화하는 건 그들이 밴에 이름을 붙였기 때문이다. 비니다. 비니는 다른 캠퍼 밴에 비해 오래되고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비니가 어디든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줄 걸 알았어요." 샬럿이 말했다. 비니는 꽤 유용하다. 고리를 잡아당기면 천장이 열린다. 그럼 실내에서도 입식 생활을 할 수 있다. 분리 가능한 스토브를 장착해 안에서든

밖에서든 요리가 가능하고, 솔라 패널과 듀얼 배터리 시스템도 장착해 전력 부족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뒷문의 작은 텐트를 활용하면 공간도 확장할 수 있다. 밴 라이프를 시작하기 앞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들은 무엇을 준비했을까. "발신이 제한되거나 휴대전화 신호가 잡히지 않는 곳이 있으니, 미리 오프라인 지도를 내려받으세요." 마음가짐도 중요하다. 밴 라이프는 매일 계획하며 살지 않는다. 그렇게 살 수도 없다. 어딜 가든 영감을 받기 위해 스스로에게 자유 시간을 허락해야 한다. "최고의 순간을 추구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세요."

레드 센터
호주 중심부에는 레드 센터 지역이 있다. 말 그대로 내륙에 위치한 붉은 사막이다. 끝없이 펼쳐진 붉은 사막은 묘한 감동을 준다. 그곳 울루루는 샬럿과 제임스가 가장 사랑하는 곳이기도 하다. 그들은 비니를 타고 울루루로 여행하길 좋아한다. "킹스 캐니언 탐험도 사랑하죠. 레드 센터는 모험으로 가득해요." 그들은 협곡에서 수영하고, 서부와 동부를 탐험하며 하이킹을 시도하기도 했다. 뉴질랜드에서도 비니와 함께했다. 일종의 로드 트립이었는데, 그들은 우연히 푸카키 호수를 발견했다. "현실일 리가 없어." 그들은 아름다운 에메랄드빛 호수를 보고 외쳤다. 초현실적인 순간이었다. 그들은 어느 한곳에 정착하지 않았다. 해안가에서는 캠핑의 즐거움을 만끽했고, 수영하며 쉬는 여유도 만끽했다. 푸카키 호수에선 뉴질랜드의 최고봉인

아오라키를 탐험했다. "테카포에 꼭 가보세요. 밤하늘을 수놓은 경이로운 별들의 잔치를 보게 될 거예요." 제임스가 추천했다.
뉴질랜드로
비니와 함께한 1년 동안 호주와 뉴질랜드를 떠돌았다. 그건 여행이라기보다 유목 생활에 가까웠다. 다른 유목민과의 차이는 새로운 모험을 받아들이고, 망설임 없이 도전하는 방법을 터득했다는 점이다. 밴 라이프가 알려준 생활의 지혜다. "기회는 열린 마음을 가졌을 때 시작돼요." 샬럿은 유목 생활이 세상을 보는 관점과 가치관을 뒤바꿨다고 말했다. "사소한 것도 느긋하게 즐기는 법을 배웠어요." 샬럿과 제임스는 비니와 함께한 뉴질랜드 여행을 가장 즐거운 순간으로 꼽았다. 호주에서 비니를 타고 뉴질랜드로 가는 길은 그들의 예상보다 훨씬 길었다. 규제가 많아서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그들은 예민해졌다. "하지만 저는 뉴질랜드 출신이라 비니에게 우리 집을 보여줄 특별한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아주 행복한 여행이었죠." 뉴질랜드 출신인 샬럿이 말했다.
캠퍼 밴과 결혼식
샬럿과 제임스는 결혼식에 비니를 초대했다. 결혼식에 45년 된 폭스바겐 미니버스를 손님으로 맞는 것은 꽤 이상하지만, 그들은 비니를 포토 부스에 넣었을 때 행복했다고 한다. "친구와 가족이 모여 다 함께 비니를 타고 사진 촬영을 한 아주 특별한 순간이었죠." 그들 삶의 중요한 순간에는 밴이 있었다. 어느 삶이 그렇다. 밴 라이프도 행복한 날들만 있었던 건 아니다. 호주 서부의 동굴 탐험에서 그들은 물속에서 반짝이는 무언가를 보았고, 그 빛이 악어 눈임을 금세 깨달았다. 그들은 동굴에서 침범거리며 이동했는데, 귀가 예민한

악어는 그 소리를 듣고 물에서 빠져나와 샬럿과 제임스에게 다가갔다. "살면서 그렇게 빨리 달려본 적은 처음이에요!" 샬럿이 말했다. 그렇다면 지루했던 날은 없었을까. "사실 우리는 운전을 사랑하거든요." 매독 부부는 운전 중에는 더욱 깊은 대화가 이루어진다고 믿었다. 이동하는 비니에서 의미 있는 대화를 주고받을 때 부부는 서로 연결되었다고 느낀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천천히 이동하는 점도 비니의 장점으로 여겼다. 이걸 무한 궁정이라고 해야 할까. 그들은 비니가 아주 천천히 이동하기 때문에 풍광을 즐길 시간이 더 많다고 믿었다.
떠날 때마다 성장
미지의 세계로 간다. 그곳에는 새로운 풍경이 있고, 추억이 될 모험이 대기 중이며, 자신을 돌아볼 기회도 있다. 샬럿과 제임스는 캠퍼 밴 여행의 매력을 여유에서 꼽았다. 모험과 탐험을 위해

시간을 쓴다는 것은 도시 생활자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모험이란 무엇이고, 탐험이란 또 무엇인지. 도시에 정착해 살아가면 그 여정의 의미를 모른다. 밴 라이프가 일상이 된 신혼부부는 말한다. "여행은 끝마치기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여행은 나를 변화시키는 일이다. "우리는 떠날 때마다 성장해요." 부부가 말했다. 그렇다면 도로에서 성장을 거듭하는 그들에게 캠퍼 밴 비니란 어떤 의미일까. "비니는 많은 것을 의미해요. 우정, 모험, 가족, 사랑, 좌절, 기쁨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샬럿은 무엇보다 행복의 의미가 가장 크다고 말했다. 부부의 다음 목표는 오세아니아를 벗어나 미국으로 가는 것이다. 뉴욕이나 LA 도시는 그들의 목적이 아니다. "그랜드 캐니언을 누리고 싶어요!" 그들은 호주와 뉴질랜드의 대자연을 떠나 미국의 대자연 품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다.

요나 지그리스트

Jona Siegrist @createmyvvan

버려야 한다고 하는데, 쉽지 않다. 가진 것을 포기하는 것도 어렵다. 손에 쥘 것을 내려놓는 것은 성취하는 것보다 더 힘들게 느껴진다. 하지만 꼭 쥐고 있는 손을 펼치고, 가진 게 땅에 떨어져 자연의 일부가 되어 사라지면, 그제야 우리의 손은 휴식을 취하고, 다른 모양으로 펼쳐지기도 하며 자유를 누리게 된다. 밴 라이프는 삶을 간소화하는 방법이다. 어디로 떠나야 할지 목적지도, 방향도 없지만 그래도 나아가면 된다. 해가 뜨는 방향으로, 바람이 부는 곳으로 구름을 쫓아 이동하고, 별자리를 보며 내가 어디에 있는지 추측해본다. 요나는 밴을 타고 여행하며 살아간다. 그에게 밴 라이프는 다양한 시각으로 여러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새로운 곳을 찾아가고, 그곳에서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체험한다. 때로는 아무도 갈 수 없는 곳까지 여행하기도 한다. 요나에게 밴 라이프는 자유와 자발성을 뜻한다.

폭스바겐 T3 1987

밴으로 모험을 떠날 생각이라면, 정석 코스를 밟는 게 좋다. 남들이 선호하는 차량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먼저 가격이 저렴하고, 기계식이라 고장이 적다. 또 고장이 발생한다 해도 수리가 용이하다. 전지식 장치가 많은 차량에 비해 비교적 쉽다는 말이다. 실내를 내 취향에 맞게 수리할 때도 마음 편하다. 선호되는 밴에는 그에 맞는 액세서리도 구하기 쉽다. 요나의 밴은 1987년식 폭스바겐 T3다. 최대출력은 95마력에 불과하다. 2리터 수랭식 엔진을 탑재한 게 특징이다. 이 차량은 과거 규격차로 활약했다. 중고로 나온 매물을 구입해 직접 인테리어 전체를 개조했다고 한다. "새로운 가구들을 만들어야 했죠. 가스 쿠커와 쿨링 박스 같은 것들이요. 싱크대와 침대, 옷과 짐을 보관할 수납공간까지 제작했어요." 요나는 내부에 간소한 삶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은 모두 구비했다고 덧붙였다.

간소한 삶

밴 라이프는 달리 말하면 노마딕 라이프다. 밴은 움직이는 집이며,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곳 어디든 집을 정착하고, 생활을 이어간다. 밴에서의 생활은 정착 생활과는 다르다. 정착했다는 것은 일궈야 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뜻이고, 일궈내기 위해선 술한 과정, 노력, 희생과 책임이 이어진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게 정착지의 삶일 것이다.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다. 단지 다른 종류의 삶도 있다고 말하고 싶었다. 밴 라이프는 조금 다르다. 요나는 말했다. "간소한 삶을 사랑해요. 자유를 느낄 수 있거든요." 그는 밴 라이프에 필요한 것은 오직 뱀뱀이라고 했다.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도 얼마든지 줄일 수 있어요." 그가 짐을 내려놓고 향한 곳은 어디였을까. 밴 여행 중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이 어디였냐는 물음에, 그는 노르웨이의 로포텐제도를 꼽았다. "많은 사람들이 그 섬에서 하이킹을 해요. 경이로운 풍광을 볼 수 있거든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지금까지도 잊을 수 없죠." 노르웨이행 비행기표를 끊게 만드는 말을 남겼다.

사람과 문화 그리고 풍경

요나는 밴으로 여행하며 만난 다양한 사람과 문화, 풍경들을 기억한다. "모든 지역에는 그들만의 가치관과 시각이 있어요." 당연한 소리지만 그거한 경험은 생소한 일일 것이다.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도 있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화도 있다. "전 세계를 여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하려는 노력이에요. 우리는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들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해요." 여정은 어떨까. 어디를 가야 하고, 어떤 길을 피해야 할까. 지루한 순간은 없었을까. "저는 항상 좁은 도로를 운전하려고 해요. 그리고 경치 좋은 곳을 가려 하죠. 제가 원하는 곳을 달리다 보면 지루할 틈이 없어요." 좁은 길을 빠져나가는 1987년식 폭스바겐 T3의 모습을 상상해본다.

알프스 하이킹

열은 베이지색 캠퍼 밴이 알프스를 오른다. 좁고 굽이진 도로를 따라 유유히 올라간다. 요나는 밴과 함께한 여행 중 가장 즐거운 순간으로 알프스 하이킹을 꼽았다. 올해의 일이다. 이탈리아에 접한 알프스에 갔다. 하이킹을 하려면 한참 올라가야 했다. "힘들었지만 등산하며 맡는 알프스 공기는 힘든 기색을 지울 정도로 상쾌했어요." 그는 산을 오를 순간이 가장 즐거웠지만, 우리는 알프스 자연과 어우러진 그의 밴 사진이 더 즐겁게 보인다. 그의 캠퍼 밴이 오래 살았으니 사람 마음 정도는 공유할 줄 알 거라 믿는다. 요나에게 다른 질문을 던졌다. 알프스 하이킹은 굳이 캠퍼 밴이 아니라도 충분히 즐길 수 있다. 캠퍼 밴 여행이 다른 여행과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그 나라를 보다 깊이 여행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백패킹과 비슷하죠. 잘 갖춰진



호텔에서 보내는 휴일은 지루할 거예요. 그저 작은 공간에 머무는 것이니까요." 제아무리 근사한 호텔이라 할지라도 대자연이 주는 경이로움에 비할 바는 아닐 것이다. 자유로움 또한 그렇고. **젊음은 기회가 있고** 밴 라이프를 즐기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한다. 밴은 자유를 의미한다고, 요나의 대답 역시 다르지 않다. 하지만 자유의 여정에도 종착지는 있을 것이다. 이유는 뭐가 될지 모른다. 무엇이든 이 여정을 끝낼 이유가 될 수 있다. 여행을 끝내는 것도 자유일 테니까. 캠퍼 밴을 타고 세계 곳곳을 돌아다녔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여행하는 이유는 뭤까. "저는 아직 젊어요. 세상에는 제가 쌓을 수 있는 경험은 많이 있어요." 요나의 답은 명료했다. 젊은 그가 경험하고자 하는 세계는 어디일까. "큰 꿈이 있어요. 캠퍼 밴을 타고 러시아로 가는 거예요. 러시아를 가로질러 아시아를 여행하는 게 제 다음 목표죠." 언젠가는 광화문 거리 어디쯤에 세워진 요나의 캠퍼 밴을 발견할 수도 있을 거다.

안드레 키르히호프

Andre Kirchoff @kirchoffandre

모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어릴 때는 상상했다. 무작위로 지구본을 돌려 점찍은 나라를 탐험하는 것을. 그곳에 무엇이 누군가가 어떤 사건이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래도 좋다. 우리는 어렸고, 모험심은 우리를 꿈꾸게 만드는 힘이었으니까. 안드레는 여전히 그 힘을 갖고 있다. 스포츠, 아웃도어 그리고 온 세계를 여행하는 것. 안드레가 꿈꿔온 모험이고, 안드레의 현재 모습이다. 안드레는 여행을 새로운 문화를 접할 좋은 기회로 여긴다. 모험 수단으로 캠퍼 밴을 선택한 것은 어린 시절의 추억 때문이다. 그는 독일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랐고, 이웃은 폭스바겐 T3 웨스트팔리아 조커를 갖고 있었다. 그 차를 타고 그는 독일과 주변 국가를 여행했다. 그때부터였다. 밴을 타고 여행하는 꿈에 푹 빠졌다. 나만의 캠퍼 밴을 사야겠다는 다짐은 흐트러지지 않았고, 밴을 타고 세계를 여행하겠다는 생각은 사라지지 않았다.



폭스바겐 T3 웨스트팔리아 1989

안드레가 처음 캠퍼 밴을 구입한 것은 4년 전이다. 1989년식 폭스바겐 T3 웨스트팔리아였고, 그는 구입하자마자 '오스카'라는 이름을 붙였다. 오스카는 멀티밴 인테리어를 갖춘 차량이다. 승차 인원이 여섯 명이고, 취침 가능한 인원은 최대 네 명이다. 두 명은 루프탑 텐트에서, 다른 두 명은 뒤쪽 벤치 좌석에서 자는 식이다. 오스카는 유목 생활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캠핑 장비를 갖추고 있다. 작은 주방이 있고, 주방 선반에는 스토브 같은 것들이 있다. 마주 보고 앉는 좌석 아래에는 이동식 화장실이 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생활하는 데 부족함은 없다. 캠퍼 밴 여행에 앞서 그가 가장 고민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짐을 가볍게 싸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

밴 라이프라는 유목 생활을 하며 안드레는 무엇을 발견했을까. "자신에 대해 잘 알게 되고,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인생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깨닫죠." 안드레는 노마딕 라이프스타일의 매력을 성찰에서 찾았다. 인생에서 중요한 게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 그것이 밴 라이프의 중심이라고 안드레는 주장했다. 성찰의 중심은 자신을 관찰하는 것이지만, 그 시선이 외부로 향할 때는 어떨까. 세상을 보는 관점도 달라졌을까. "여행마다 달라져요. 하지만 저에게 중요한 것들과 제 주변의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가치관은 명확해지죠."

와일드 애틀랜틱 웨이

때로는 아름답지만 잊히는 풍경이 있다. 하지만 경이로운 순간은 결코 잊히지 않는다. 그 순간이 내가 지금 모험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며, 우리에게 여행의 이유가 무엇인지 증명한다. 안드레는 오스카를 타고 지나온 길 중 아일랜드의 와일드 애틀랜틱 웨이를 가장 인상적인 곳으로 꼽았다. "2,500km에 이르는 해안 도로와 가파른 언덕, 외곽거리리는 시내, 곳곳에 숨은 해변, 경이로운 파도의 풍광이 이어져요. 여기에 아일랜드 사람들의 친절은 덤이죠." 안드레는 아일랜드 문화를 경험해보길 권했다. 그는 아일랜드 풍경은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답다고 표현했다. 그에게 이 아름다운 해안 도로는 잊지 못할 사건들로도 기억된다. 가장 인상적인 추억으로 두 명의 히치하이커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은 아무도 없는 어딘가에 갇힌 것 같았어요. 비가 내리고 어두워지기 시작했죠. 그들을 발견하곤 밴을 세워 따뜻한 차를 내어주기 위해 주전자들

데웠어요. 그들을 밴 안으로 인도했죠." 안드레는 두 히치하이커와 밤새 대화를 이어갔다. 두 히치하이커는 여행 파트너가 되어 나흘간 와일드 애틀랜틱 웨이를 함께 여행했다. "진정한 우정은 그들에게 정말 필요할 때 돕기 위한 작은 손짓에서 비롯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또 다른 모험

자연을 탐험하는 것은 모험가의 의무이고, 모험은 위험을 동반한다. 안드레는 오스카를 끌고 숲으로 들어갔다. 호주의 좁은 도로였다. 인적이 없었고, 밤이 되었다. 화로 옆에 앉아 술과 바비큐를 즐기는 것은 야생 캠핑의 묘미다. 어두웠고, 세상은 까맣게 변했다. 그러자 숲속에서 눈동자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건 덩고 무리였다. 호주의 야생 들개인 덩고는 사람을 공격하기도 한다. 덩고들은 안드레가 캠핑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 눈치였다. "곧바로 불씨를 끄고 오스카 안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덩고들이 저를 공격하기 위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어쩌면 제가 아닌 바비큐를 노렸던 것 같기도 하고요. 하하." 다음 날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 안드레의 여정은 계속됐다. 그가 앞으로 계속 나아가게 만드는 힘은 무엇일까. "목적지가 어릴지 모르든 채 캠퍼 밴 안에 들어가서, 시동을 거는 건 아주 행복한 순간이죠. 또 다른 모험이 저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캠퍼 밴은 자유

안드레는 밴을 타고 세계를 모험하는 것은 다른 종류의 여행과 확연히 구별된다고 뜻을 밝힌다. 필요한 것을 모두 구비한 리조트 해변에 누워 보내는 휴일과 비교할 수 없다. 밴 라이프는 힘들고 복잡하며 다양한 작업이 요구되지만 결국에는 그에 맞는 보상을 얻는다. 그건 잊지 못할 모험이다. 오스카와 함께 가야 할 곳은 아직도 많이 남았다. 반드시 가야만 하는 곳이 있다면 어떨까. "캐나다를 가로질러 파타고니아로 향하는 팬아메리칸 하이웨이는 제 버킷 리스트 꼭대기에 있어요." 언젠가는 그가 미국 대륙을 종단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전에 확인해야 했다. 그에게 캠퍼 밴이란 어떤 의미인지. "자유예요. 내가 원하는 곳은 어디든 여행할 수 있으니까요."

